

선배님! 요즘 뭐하세요

제1회 '고원정' 동문



▲고원정동문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홍유리, 김주영 기사는 현재 국문과 학생이다

“90년대 문단흐름 옹지못하다”

김주영(김): 처음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고원정(고): 어려서부터 아버지나 형이 문학을 하였던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홍유리(홍): 어렸을 때 읽었던 작품중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고: 황석영의 '객지'를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 이로 인해 나의 글쓰기도 스케일이 커지지 않았나 싶다.

김: 대학때의 생활은 어땠는지?

고: 나는 수업에 충실한 모범생이라기 보다는 놀기 좋아하고, 술먹기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홍: 문학특기자로써 이 제도를 어떻게 보는지?

고: 국문과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일반 학생들은 이 제도에 자극을 받고 특기생 역시 학과공부에 매진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다.

이택근(이): 집필한 작품 중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고: 방벽이 가장 애착이 간다. 집필시간도 오래되었고(76~89년)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작품 중 하나이다. 나는 책을 쓰기 전에 독서카드를 만들어 소설을 쓸 준비를 하는데 방벽의 경우는 2천장이 넘는다.

이: 집필한 책의 대부분이 역사와 정치소설인데 이유는?

고: 대학교때 내가 읽은 책의 주류는 서정적인 성격의 소설들이었다. 스케일이 큰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이러한 문학계의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의 글쓰기 목표와 함은 '개인과 집단', '개인과 전체'가 잘 드러나는 소설을 집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역사소설이 주를 이룬다.

김: 그러면 현재 문단의 지극히 서정적인 흐름에 불만인가?

고: 90년대의 문단흐름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직 시대의 구조, 모순 등이 치유되지 않은

현 문학계는 우리학교출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과후 배나 존경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으나 기회가 없어서 만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이에 우리신문사에서는 이들을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는 기획 하에 최초로 국문과를 졸업한 고원정동문을 찾아냈다.

고원정동문은 79년 문단에 등단한 뒤 방벽, 대한제국일본침략사 등의 책을 집필하였고 현재 대선정국을 배경으로 새로운 매시지를 담은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 <편집자>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감추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은 곧 바뀔 것이라 믿는다.

홍: 정치적인 내용의 글보다는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은 어떨는지?

고: 지난 총선때 그런 권유를 받았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이렇게 잘라 얘기했다. “나는 정치를 할 체질도 아니고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김: 방송일도 했었는데 방송일의 계기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면?

고: 방송을 하고 싶던 차에 역사프로그램(다큐멘터리 극장)의 사회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글 내용과도 호응이 되는 것 같아서 출연을 하게 되었다. 방송일을 통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았다. 일반사람들이 각각 '고원정'으로 알기보다는 방송인 '고원정'으로 알기 작가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본다. 한 예로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테이블에 있던 손님이 내게로 오더니 “방송에서 작가로 소개되는데 소설은 무엇을 썼었습니까?”라고 물었다.

홍: 문학적으로 욕심이 있다면?

고: 나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거나 문학상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소망이 있다면 우리사회의 중심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작품을 남기고 싶다.

이: 경희대학의 선배로서 후배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고: 기성세대에게 최소한의 본분을 지키되 그들의 뜻에 맞추지 말고 앞으로의 시대에 맞추어 개척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인터뷰=이택근, 김주영, 홍유리 기사

다음주는 미교과를 졸업한 유근병 동문입니다

개인주의에 좌초된 동아리현실

동아리 위상의 변화 어떻게 달라졌는가?

92년도 우리신문에서는 동아리의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다. 84년도 이후 불어닥친 학원자율화조치로 기존에 동아리로 응징되던 대학의 문화가 학생회나 과 단위의 소모임으로 이전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른 실정이다. 대학에도 신세대바람이 불면서 어느 곳에 구속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92년도에 이어 다시 다룬다. 그때의 현실과 지금을 비교해보며 문제점과 개선책을 진단해 본다. <편집자>

“이제는 동아리살리기 운동이라도 벌여야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동아리가 운영이 안 되겠어요.” 한 동아리 간부의 푸념적인 목소리이다.

현재 각 동아리들은 많게는 7~8명, 적게는 1~2명이 신입부원이 있다. 그야말로 동아리 간에 부익부 빈익빈현상인 것이다. 신입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야외스포츠 운동이나 컴퓨터 관련 동아리들이고 봉사 관련 동아리들은 이들 동아리들에 비해 신입부원들이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봉사관련 동아리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주의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동아리에 가입하는 신입부원의 수가 갈수록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에 고무되어 각



▲동아리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동아리 위상의 변화 어떻게 달라졌는가?

활동내용 기록없이 발전 늦어져 전문성 강화로 문제 해결해야

동아리들도 '개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려하고 있다.

기존에 동아리들은 사실상 친목도모를 위한 자리가 대부분이었다. 또 그런 자리를 학생들이 위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친목단체보다는 전문성을 요하는 동아리를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방편으로 각 동아리는 전문성을 키우는 한편 각

동아리마다 맞는 특성을 키우는 것이 지금의 현실에 있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영어회화 동아리는 지금의 '읽기' 위주에서 '말하기'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측 역시 동아리에 전담교수를 배치해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깊은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며 10월 경에는 우수 동아리 표창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동아리의 운동권 인식이다.

최근에 한총련 사태가 있은 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동아리도 하나의 운동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수원캠퍼스의 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세훈(회계 91)은 “동아리 중에 운동권 동아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다.”라고 말한다.

현재 동아리들은 그들 나름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동아리의 활동내용들을 알려줄 체계적인 자료가 없어서 과거에 대한 반성이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지점점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생각이 다. 편하게만 살려는 학우들의 무관심한 생각으로 인해 이러한 동아리들의 발전계획들은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른다.

동아리는 학과에 이어 학생들의 욕구를 분출하는 또 다른 곳이다. 동아리가 발전해야 대학이 발전한다는 말이 있다. 동아리 회원들간의 긴밀한 친목관계와 전문성을 살리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부>



▲동아리에서 전통악기를 다루고 있는 학생들

문화단신

국립오페라단 제85회 정기공연

국립오페라단의 제85회 정기공연이 오는 10월5일부터 12일까지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청교도'를 가지고 공연한다.

한국 초연의 벨리리 오페라인 '청교도'는 대중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오페라를 관객과 접근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입장료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이다. ☎ 274-1151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아·태영화제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영화제 몇 번 치러진 적이 있었지만 국제영화제는 이번 부산영화제가 최초이다. 처음인 만큼 많은 준비를 해온 이번 행사는 세계31개국 1백70여편의 영화가 지난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비경쟁방식을 채택한 이번 영화제는 개막 작품으로 칸느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마이크 리 감독의 '비밀과 거짓말'을 비롯하여 아직 개봉되지 않은 영화를 개봉한다.

입장권은 부산은행 전지점에서 구매가 가능(서울: 서초동, 삼성동 등)하며 가격은 3천원이다.

영화 '올리시즈의 시선'

지난해 칸느영화제에서 대상을 차지했고 '타인'지 선정 세계 최우수 10대 영화에 선정된 '올리시즈의 시선'이 오는 10월12일 개봉예정이다.

영화감독 A에 시선을 따라가며 20세기가 남긴 철학, 역사, 문학, 영화 등 예술 전반에 걸쳐 풍요로운 색채를 담아낸 영화이다. 총 상영시간은 3시간이며 개봉관은 미정이다. ☎ 3443-5527

꽃다지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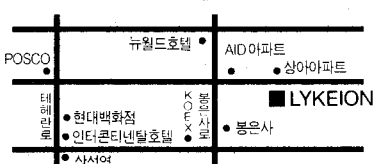
민중가요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꽃다지가 2년 만에 신곡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안치환 작곡의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비롯하여 총 16곡의 노래가 선보이며 노래의 사이사이마다 관객과의 이야기로 1백10분간 이어진다.

그 동안 다양한 노래와 공연양식으로 일곱 차례의 콘서트를 가져왔던 꽃다지는 이번 신곡 콘서트를 통해 대중에게 민중음악을 새로이 검증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서울두레극장에서 열린다. ☎ 3673-2961

YONSEI FOREIGN LANGUAGE INSTITUTE & LYKEION



* 삼성역(인근)에서 지하철 2호선과 3호선(국립은행역)에서 리케이온 서울버스가 운행됩니다.

English Becomes You

리케이온은 연세대학교 연세어학원과 함께합니다

LYKEION

■개강: 10월 1일 ■접수: 9월 17일(화) ~ 9월 24일(화) ■학기과정(10.1~12.27): Native English Conversation • Business English ■월과정(10.1~10.29): Bilingual 영어/일어회화 • Free Talking • Mother's Class • AFKN • SCREEN ENGLISH • TOEIC L/C • TOEIC 종합 • TOEFL 종합

리케이온 랭귀지 포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66 Tel. 02-3444-2929